



프랑스리가 파리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이 28일(한국 시간) 리아브르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수비수를 앞에 놓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강인 극장골 극적 도움 패배 위기 PSG 구했다

하무스 헤더 동점골 택배 크로스 승점 1추가... 팀 리그 3연패 눈앞

이강인이 시즌 3호 도움을 올리며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을 리그 3연패 목표로 이끌었다.

PSG는 2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4시즌 리그1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강등권 안저리의 리아브르와 3-3으로 힘겨게 비겼다. 2-3 패배 위기에 몰린 후반 50분 이강인이 곤살루 하무스의 극적인 헤더 동점골을 '택배 크로스'로 도와 PSG에 귀중한 승점 1을 안겼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문전의 하무스가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마무리해 왼쪽 골망을 출렁였다.

이 골로 선두 PSG(20승10무1패 승점 70·골 득실 +47)는 2위 AS모나코(승점 58·골 득실 +18)와 승점 차를 12로 벌리며 리그 우승에 성큼 다가섰다.

한 경기를 덜 치른 모나코가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PSG가 전패하더라도 승점에서 앞지르지 못했다. 승점이 같더라도 골 득실 격차가 매우 커

PSG의 우승이 거의 확정적이다.

2021~22시즌과 2022~23시즌 거꾸 우승한 PSG는 리그 3연패이자 통산 12번째 우승을 눈앞에 뒀다. 올 시즌을 앞두고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에게는 만 23세에 맞을 생애 첫 리그 우승이다.

이강인은 2018~19시즌 스페인 발렌시아 소속으로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올 시즌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에서 두 차례 컵 대회 우승만 경험한 바 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 도움을 3개로 늘렸다. 26라운드 몽펠리에전(6-2 승) 득점 이후 한 달 만에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다. 이강인은 리그 2골 3도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1골 1도움, 슈퍼컵 1골 등 공식전 4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리그1 잔류 마지노선인 15위 리아브르를 상대로 PSG는 힘겨운 승부를 펼쳤다. 리아브르 크리스토퍼 오페리가 전반 19분 PSG의 허술한 수비라인을 뚫고 골 지역 왼쪽에서 반대편 골대 구석을 찌르는 왼발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뽑았다.

PSG가 전반 29분 브라들리 바르콜라의 골로 1-1을 만들자 리아브르는 전반 38분 앙드레 아예우의 예리한 왼발 슈팅으로 다시 앞서나갔다. PSG는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과 킬리안 음바페를 투입하며 공격진을 강화했다. 이강인은 아센시오와 교체 투입됐다.

그런데도 리아브르가 후반 16분 압둘라 에 투레의 페널티킥골로 3-1까지 달아나면서 승리를 거머쥐는 듯했다. 앞서 PSG 다닐루 페레이라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리아브르 로의 네고와 경합하다 발을 걸어 차 페널티킥 판정이 내려졌다.

막판 파상공세를 펼치던 PSG는 후반 33분 하무스의 침투패스에 이은 아슈라프 하키미의 골로 한 점을 따라붙더니 추가시간 이강인과 하무스가 동점골을 합작해 패배를 면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3-3 득점은 우리에게 타이틀을 안겨줬다. 그래서 동점골에 대해 많이 축하했다. 앞으로 두 개의 트로피가 더 남아 있다. 챔피언스리그와 쿠파 드 프랑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PSG는 올 시즌 쿠파 드 프랑스에서 결승에 올라있는 가운데 다음달 리옹과 우승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올라 있는 PSG는 다음달 도르트문트(독일)와 대결하며 사상 첫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뒤늦게 황금장갑 품에 안은 김하성

2023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내야수 김하성(28)이 뒤늦게 황금장갑을 받았다.

김하성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열린 2024 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골드글러브 전달식에 참석해 롤링스사 관계자들로부터 금색 글러브 트로피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수상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골드글러브는 1957년부터 MLB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야구용품업체 롤링스사가 주관한다.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28일(한국 시간) 황금장갑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하성은 지난해 2루수, 3루수, 유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리그 최고의 수비력과

다양한 재능을 뽐냈고, 30개 구단 감독과 팀 당 최대 6명으로 이뤄진 코치진의 투표, 미국야구연구협회(SABR)의 수비 지표를 합쳐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롤링스사는 따로 시상식을 열지 않았고 올 시즌 수상자들의 경기 현장에서 약식으로 황금장갑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시즌 우익수 부문 골드글러브와 플래티넘글러브를 수상한 팀 동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도 전달식에 함께 참석했다.

한편, 김하성은 이날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에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프로 15년차 이정민... 첫 메이저 우승

프로 15년 차인 '아이언 샷의 칸' 이정민(사진)이 마침내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품었다.

이정민은 28일 경기도 양주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토프앤씨 제46회 KPGA 챔피언십(총상금 13억 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쳐 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 메이저 타이틀에 올랐다. 이정민은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12개를 낚은 2위 전예성(19언더파)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이 없던 이정민은 이 대회에서 시즌 첫 승, 통산 11승을 쌓았다. 이정민은 샷이 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독한 퍼팅 임스(불안 증가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려 그동안 우승과 거리가 멀었다.

이정민은 이번이 KPGA 정규투어 통산 324번째 출전이었다. 2022년 12월 18일 PLK 퍼시픽리스크리아 챔피언십(2023시즌 대회) 우승에 이어 약 1년 4개월에 맞서는 KPGA 투어 통산 11승째다. 우승 상금 2억3400만 원을 받은 이정민은 시즌 상금을 3억1213만 원으로 늘려 상금랭킹 16위에서 1위로 수직 상승했다. KPGA 정규투어 통산 상금은 44억6610만 원이 됐다.

이정민은 3라운드에서 홀인원을 포함한 6타(10언더파)를 몰아쳐 1타 차 단독



선두로 도약한 기세를 이날도 이어갔다. 전 반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간 이정민은 큰 위기는 없었다. 1번홀(파3) 2.2m 첫 버디를 시작으로 3번과 4번 홀(이상 파4)에서 연달아 1.2m 버디를 낚았다.

6번 홀(파4)부터 8번 홀(파4)에서도 다시 3연속 버디를 뽑아내며 선두를 질주했다. 6번 홀 6.2m 버디 퍼트를 떨군 데 이어 7번(파5)과 8번 홀에선 정확한 어프로치 샷으로 1m 이내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